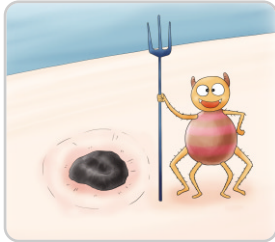


감염증상

쯔쯔가무시증은 1~2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하므로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!

- 피부발진
- 진드기로부터 물린 상처(검은딱지)
- 38℃ 이상 고열이 이틀 이상 지속
- 심한 두통이나 기침, 근육통이 지속
- 폐렴, 심근염, 뇌수막염 등 합병증

※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할 수 있음



야외 작업 후 두통, 고열, 오한, 근육통과 같은 심한 감기증상이나 피부발진, 벌레 물린 곳이 있으면 지체 말고 보건소나 병원을 찾으세요!

Q&A

Q | 고령인 사람만 감염되는 것 아닌가요?

A | 쯔쯔가무시증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최근 주5일 근무로 인한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일반인 환자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.

Q | 쯔쯔가무시증에 걸린 사람은 격리 시켜야 하나요?

A | 쯔쯔가무시증은 사람간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격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.

Q |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가요?

A | 아직까지 쯔쯔가무시증 예방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예방수칙을 지켜 감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■ 쯔쯔가무시증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

▶ 질병관리본부(www.cdc.go.kr)



문의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Tel: 032-5100-500

www.kosha.or.kr 2011-교육미디어-97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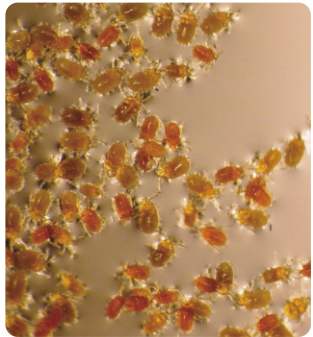
쯔쯔가무시증 예방할 수 있습니다



프프가무시증

프프가무시증은 8월 하순부터 11월에 주로 감염되는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입니다.

프프가무시균이 풀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있다가 작업하는 사람을 물때 몸 속으로 침입해 질병을 일으킵니다.



털진드기 유충



풀숲 속 들쥐

프프가무시증 감염 위험이 높은 근로자

- 산림, 공원 및 거리 조성사업, 배수로 공사 근로자 등
- 농업, 임업 근로자 등
- 조경 및 제초작업자 등

프프가무시증 예방 수칙을 기억하세요!

작업 전

- 긴옷에 토시를 착용하고 장화를 신습니다.



- 벌레 쫓는 약인 기피제를 뿌립니다.



작업 중

-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고 휴식할 때는 돛자리를 사용합니다.
※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
-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습니다.



작업 후

- 작업이 끝나면 바로 목욕을 합니다.



- 작업복은 깨끗하게 세탁합니다.

